

ESG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2021 환경재단·매일경제 공동기획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리더십과정

제2기



## ‘제1기 ESG 리더십과정’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재단 최열입니다.

ESG,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등 한참 전에 나온 용어이지만 최근 매일 언론에 등장하고 이 불안한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전 지구가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 의식이 자리잡아가는 과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등과 맞물려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규제가 보다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넷제로(Net Zero)와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했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 ESG 공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경영의 큰 패러다임도 전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유럽에서 200여 년 걸린 산업화를 우리는 반세기 만에 이뤄냈지만 그 결과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이 있고, 변화에 언제나 신속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본 과정은 정부,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중장기 확실한 목표와 전략으로 ESG 모델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환경재단은 매일경제와 함께 국내 최고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국내 최초 ESG 리더십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리스크 점검 및 여러분들과 함께 ESG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이 과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장승준입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UN책임투자원칙을 제정하면서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경영(Governance) 등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회계지표뿐 아니라 ESG라는 비재무제표까지 포함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창기 ESG는 선언적인 문구이자 기업경영의 선택사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기후변화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전 지구의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당면 과제가 됐고, ESG 경영은 기업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친환경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면서 ESG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록 등 글로벌 펀드들은 투자기업에게 ESG경영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인 '넷제로'(net zero·탄소배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와 'RE100'(Renewable Energy 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한 기업들은 친환경 회사와 거래하도록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 ESG 확산과 맞물려 우리도 ESG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매일경제와 환경재단이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ESG 리더십 과정'은 대한민국 리더들에게 글로벌 ESG 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가능금융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 ESG의 최신 현안을 살펴보고 신사업 발굴 가능성을 타진해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식경제신문을 추구하는 매일경제는 한국형 ESG 모델 개발과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Guidelines for Applicant

모집요강

## 지원 자격

-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려는 기업 최고경영자
- 한국형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입안 최고 공직자(국회, 정부, 지자체)
- 지속가능 금융과 책임투자를 통해 ESG 활성화에 앞장서는 금융기관장
-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별로 해법을 모색하는 학계 및 시민단체
- 글로벌 ESG 규제리스크를 점진하고 ESG표준화를 지원하는 법률가

## 과정 개요

기 간 2021년 9월 9일(목) ~ 11월11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9시

장 소 서울 더플라자호텔(중구 소공로 119)

주 최 매일경제, 환경재단

수업방식 강의·경영 사례와 최신저널 소개 및 토론 (만찬 포함)

현장연수 1회, 워크숍 1회

강연 일부 온라인 Live 진행

정 원 60명

참 가 비 1인 950만원 (연수비용 포함, 동문회비 50만원 별도)

입금계좌 우리은행 142-311067-01-101 (환경재단)

기업은행 035-064530-01-052 (환경재단)

(환경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세법 34조, 법인세법 24조에 의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

절 차 신청서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등록  
※ 신청서 환경재단 홈페이지([www.greenfund.org](http://www.greenfun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마감 추후 안내

원서접수 [esg@greenfund.org](mailto:esg@greenfund.org)

## 문의

사 무 국 ESG 리더십과정 사무국

메 일 [esg@greenfund.org](mailto:esg@greenfund.org)

전 화 02-2011-4355, 4342

---

# Korea Green Foundation 환경재단

---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되어 아시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정부·기업과 손잡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그린허브입니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내환경운동가와 시민·환경단체들을 지원하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문제를 가까이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8일부터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재단 등 21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차 기후변화 주간에 탄소중립 개념을 도입해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생명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그린리더’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환경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 중고교생, 청년과 오피니언리더, CEO 등 각계 각층의 그린리더 약 97만명을 배출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기후변화리더십과정’을 10기까지 운영하여 그린리더 56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를 전달하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린리더 417명을 배출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기준이 되는 ESG 리더십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KOREA GREEN FOUNDATION  
환경재단



**매일경제**